



집, 일상, 감시: 팬데믹 시기 집의 재구성과 ‘감시 돌봄’ 실천 연구

채석진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Home, Everyday Life, and Surveillance :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Practices of ‘Surveilling Care’ at Home*

Suk Jin Chae**

(Assistant Professor, Chosun University)

Drawing on a two-year ethnographic fieldwork, this article explores a new form of surveilling care practices at home. In particular, it focuses on how individual households have reassembled their everyday lives and care practices with domestic surveillance technologies during COVID 19 pandemic. The pandemic has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in our daily life. One of them is the rise of surveilling practice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pace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individual households have adopted domestic surveillance technologies in response to the care crisis during the pandemic and how it affects the nature of care relations at hom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surveil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s. Ten Korean families residing in various countries participated in this ethnographic study that took place between 2020 and 2022. Among the ten famil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xperiences of three families living in the central part of South Korea. This article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with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relations between domestic technologies and care practices, it shows how government and corporate surveillance of homes have been intertwined with caring practices by parents. Then, with the stories of three families whom I met in the fieldwork, it tells how individual households have transformed care practices with various domestic surveillance technologies during the pandemic. Finally, this study considers how those households have reacted to the care problem differently and have formed various care relations at home. In doing so,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s on care at home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Chosun University, 2022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논문의 초벌은 한국언론학회 2022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고, 일부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미래전략보고서(채석진, 2021b; 채석진·오연주, 2022)에 실렸다. 더 완성된 논문이 되도록 구체적이고 통찰력 있는 제안과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sjchae@chosun.ac.kr

in three aspects: Care practices are viewed as collective acts of the connected and dependent subjects, rather than as individual acts of isolated and autonomous subjects; home is considered not as an isolated space, but as a social setting that undergoes ongoing transformation in tandem with broader sociotechnical changes; media technology is considered as a significant actor mediating care practices across time and spaces, breaking away from the tendency of care studies to focus primarily on human actors. Through this approach, this study seeks for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caringscapes' (Mckie et al. 2002) during the pandemic. In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expansion of surveilling practices at home erodes our capacity to build caring social relations.

Keywords: Surveilling care, care practices, caringscapes, domestic surveillance technologies, everyday life

1. 들어가며

2년이 넘게 지속된 팬데믹 상황은 일상을 조직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거리, 상점, 학원, 학교 등과 같은 공적 공간에서만 아니라, 집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감시 기술이 급속하게 확산된 것이다.¹⁾ 그동안 디지털 기술 기반 감시 문제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주로 공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e.g. Andrejevic, 2020; Lyon, 2018), 이 글은 그러한 논의에서 다소 주변화되어왔던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 디지털 감시 기술이 도입되며 조립되는 새로운 감시의 주요한 양식으로 돌봄 실천(care practices)에 주목한다.

이 글이 돌봄 실천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정용 감시 기술의 보편화가 돌봄 관계의 변화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구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정용 감시 장치가 확산하는 주요한 사회적 배경은 ‘돌봄의 위기’이다(Ticona, 2020; Ticona & Mateescu, 2018). 티코나(Ticona, 2020)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나라들은 ‘이중의 돌봄 위기’를 겪어 왔다. 이중의 돌봄 위기는 ‘여성들이 임금노동 시장으로 진출하며 발생한 돌봄 위기’와 ‘길어진 수명으로 촉발된 돌봄 위기’가 겹쳐서 진행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전통적으로 돌봄 노동을 담당하던 여성 노동이 유급 노동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며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노동력은 현격히 줄어든 반면, 노인 과 같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증가하는 상황이다(Ticona, 2020). 한국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중의 돌봄 위기를 겪어왔다.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한국 정부는 돌봄의 외주화를 통해 돌봄 위기에 대응하며, 한편으로는 저임금 돌봄 노동자를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시 기술을 확산시켰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돌봄 위기’라는 사회적 문제를 ‘돌봄 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시되는 디지털 기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시도하였다. 팬데믹 상황은 돌봄의 외주화를 통해 유지하였던 일상 패턴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팬데믹 이전 많은 시간을 보내던 학교가 문을 닫았고, 방과후 대부분의 돌봄을 담당하였던 학원 들도 한동안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가정용 감시 기술은 빠르게 집이라는 공간에 들어왔다.²⁾

1) 예컨대, 방송통신사들은 스마트홈 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정용 CC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LG U+ ‘스마트홈 우리집 지킴이’는 코로나 전인 2019년 8월 - 2020년 1월 대비 코로나 이후 2020년 8월 - 2021년 1월 기간 가입자가 73% 급증했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 원격 수업을 실시하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어린 자녀를 살피기 위한 맞벌이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박혜림, 2021)

2) 대표적인 예는 화상 카메라이다. 대면 수업은 교실에서 교사의 물리적인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반면, 비대면 수업은 화상 카메라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아이가 집에서 수업을 듣는 사이에 많은 부모들은 일을 나가야 하는 경

이 글은 2년간의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팬데믹 시기 개별 가구들이 어떻게 상이하게 돌봄 위기에 대응하며 집과 일상을 재구성하며 돌봄 실천을 하였는지 탐사한다. 특히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경험하는 감시는 거리, 상점, 학교, 사무실과 같은 공적 공간에서 경험하는 감시와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거주민들이 자기 집에 직접 설치한 가정용 감시 기술을 매개로 어떠한 속성과 양식의 돌봄 관계가 조립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가정용 감시 기술과 돌봄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로, 가정용 감시 기술을 매개로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정부와 기업의 집에 대한 침범이 부모의 자녀에 돌봄 실천과 어떻게 긴밀하게 맞물려 작동해왔는지 논의한다. 또한 돌봄 관계를 고립되고 자율적인 주체들의 개별적 행위가 아닌,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되어 수행하는 집합적 행위로 논의한다. 다음은 현장 연구에서 만난 세 가구의 이야기로, 팬데믹 시기 개별 가구가 돌봄 위기에 대응하며 어떻게 가정용 감시 기술을 채택하여 돌봄을 수행하였고, 이 속에서 어떠한 속성의 돌봄 관계가 조립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돌봄 실천에 관한 두 가지의 지배적인 경향에 도전한다. 하나는 돌봄을 주로 집에서 수행하는 고립된 실천으로 가정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집이라는 공간이 공적 영역의 변화와 맞물려 끊임없이 재조립되는 공간이며, 돌봄 실천이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공적/사적 영역을 가로질러 항시적으로 연결되어 구성되는 행위임에 주목한다. 다른 하나는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공적/사적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가로질러 수행되는 돌봄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행위자임에 주목하여, 돌봄 실천을 (기존 연구가 초점을 두었던) 인간 행위만이 아닌 비인간적 요소들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인적-기술적-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탐사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 연구는 ‘돌봄 전경’(caringscapes)(Mckie, Gregory, & Bowlby, 2002)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결론으로 이 글은 팬데믹 시기 집에서 가정용 감시 기술을 매개로 구성하는 ‘감시 돌봄’ 실천이 광범위하게 조립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돌봄 관계를 침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에 집에서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자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집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경우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감시 카메라로 집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를 감시하는 실천들이 보편화되었다. 공적 공간에 설치된 감시 기술이 그러하듯, 가정용 감시 기술 장치는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범주와 감각을 만든다.

2. 가정용 기술 장치와 돌봄

1) 오래된 침범들: 사적 영역의 공공화와 감시 돌봄

집은 전통적으로 휴식의 공간이자 자율성의 영역으로 상징되어왔다. 가정용 감시 장치 기술의 발전과 시장화는 '신성한 집'의 영역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확산해왔다. 자동화된 '미래의 집'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선전도 이에 해당한다. 마알센과 사도위스키(Maalsen & Sadowski, 2019)에 따르면, 20세기 중반 이후 다양한 버전의 유토피아적인 '미래의 집' 선전이 생산되었다. '미래의 집'은 1950년대의 초모던 집, 1980년대와 90년대의 컴퓨터 홈, 그 이후에도 다양한 변주로 남아있다. 시대는 다르지만, 이들은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 "집의 자동화는 집안일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여가를 늘리고, 집을 감시와 보안 체계를 갖춘 요새화된 성으로 만든다"(Maalsen & Sadowski, 2019, p.118). 현재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한 '스마트홈' 논의 또한 동일한 선전을 반복한다. 기업과 정부는 "연결된 장치들이 집안의 행동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클라우드 플랫폼과 통신하고, 다른 장치들과 조율함으로써 집을 통제하고, 사용자/생산자/다른 관련자들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보내"(p. 118)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Doty, 2020). 이러한 지배적 시각에 도전하며, 많은 연구는 사물인터넷이나 알고리즘과 같은 자동화된 기술이 오히려 사생활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i.g. Zheng, Apthorpe, Chetty, & Feamster, 2018; Maalsen & Sadowski, 2019). 즉, 스마트 장치들이 로그젝트(logjects: 자신의 활동을 녹화/녹음하는 물체)(Kitchin & Dodge, 2011)으로 작동하며 이전에 접근이 어려웠던 사적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기업과 정부에 전송하는 데이터 공장으로서 집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Lyon, 2018; Zuboff, 2015, 2019).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용감시기술이 외부인의 침략으로부터 '나의 성'을 지키는 것으로 선전되지만, 모순되게도 집의 거주민을 계속 감시하며 전통적인 집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한다(Doty, 2020, 2021; Maalsen & Sadowski, 2019; Rapoport, 2012). 도티(Doty, 2020)는 스마트홈에서 이러한 경향이 증폭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장치들의 활동은 종종 집주인의 지식, 동의, 혹은 해당 장치를 멈출 능력 없이 일어난다. 이러한 장치들을 멈추려면 완전히 차단하거나 전원과의 연결을 끊어야 한다. 이는 전체 시스템을 심각하게 중단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가 스마트홈을 현대 감시 사회의 주요한 부분으로 만들고, 사생활과 보안의 모순을 생성한다."(Doty, 2020)

기업과 정부가 집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맬센과 사도위스키(Maalsen & Sadowski, 2019)가 지적하듯, 정부는 복지정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적 공간에

서의 개인 행동을 조정해왔다. 기업 또한 집에서 개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이 많았다. 예컨대, 20세기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던 포드는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한 양식의 사생활 실천을 요구하였고, 실제 노동자의 집을 방문하여 회사가 제안한 방식으로 생활을 하는지 감독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집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권력을 수행하는 주요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훈육적인 감시, 보상, 처벌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스마트홈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증폭되고 있다 (Maalsen & Sadowski, 2019). 이 점에서 현재 스마트홈을 통해 수행되는 감시는 과거와의 단절된 새로운 양식의 출현이라기보다, 가정의 영역에 대한 훈육을 심화시키고 증폭시킨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오래된 침범은 집안에서 부모(양육자)가 자녀를 대상으로 수행해 온 침범이다. 앞서 논의한 기업과 정부의 감시 실천이 '신성한 집의 침공'이라는 비판은 비교적 쉽게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자녀에 사생활 대한 부모의 침공은 오랜 시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보이드(Boyd, 2014)가 지적하듯, 십대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시는 정부와 기업보다 양육자에 의한 것이다. 부모의 감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십대의 오래된 투쟁이었다. 이러한 자율적 공간에 대한 투쟁은 흔히 반항으로 규정되어왔다. 현재 십대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오래된 시각을 반영한다. 보이드는 안전에 대한 공포와 부모 책임에 대한 강조가 결합하여 십대의 소셜 미디어 공간에 대한 감시가 돌봄 실천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구성되었음을 지적한다. 보이드의 연구에서, 많은 부모는 자녀의 소셜 미디어 공간을 수시로 들어가 아이가 누구와 어울리며 어떠한 말을 하는지 염탐하고, 그것이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이드의 연구는 이러한 감시 실천이 양육자와 자녀 사이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Boyd, 2014).

보이드가 감시 돌봄에 대한 십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마키넨(Makinen, 2016)은 핀란드 사람들의 스마트홈 통합 감시 시스템 경험을 연구하며, 양육자가 감시 기술을 사용하며 형성하는 복합적인 감정과 태도를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홈 감시 장치가 떨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찬양하였다. 와이즈가 지적하듯(Wise, 2004), “카메라는 인간 현존의 대체물이 되었다”(camera becomes a proxy for human presence)(p. 425). 이러한 현존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아이, 애완동물,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이러한 장치를 쓰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리감을 드러냈다. 예컨대, 이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사이

에도 스마트홈 보안 시스템으로 끊임없이 관찰당하는 점을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답자들은 연구자에게 자신들이 관음주의자이거나 스파이 같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자신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태도를 마키넨은 “진실한 감시(sincere surveillance)”(p. 73)라고 표현한다. 본 연구는 가정의 영역에서 자녀들에 대한 돌봄 행위로 수행되는 ‘진실한 감시’ 실천에 대한 탐사이다.

앞서 기술한 연구들은 집에서 작동해온 오래된 침범들, 즉 ‘국가 혹은 기업의 집에 대한 침범’과 ‘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침범’이 긴밀하게 결합하여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가정용 기술장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며,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의 공공화를 이끈다. 가정용 감시 기술의 확산 과정에 돌봄 실천이 차지하는 주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감시기술 연구에서 돌봄 실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돌봄을 언급하는 경우도, 돌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는 빠져있다. 이 글은 가정용 감시 기술 장치를 매개로 수행되는 돌봄을 ‘감시 돌봄’으로 개념화하고, 감시 기술 장치를 매개로 구성되는 돌봄 관계의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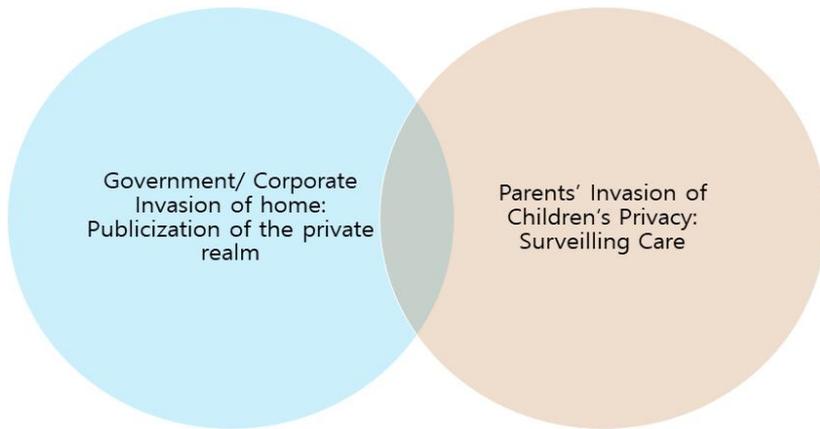


Figure 1. Double Invasions at Home

3)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구성되는 사회를 ‘감시사회’로 정의한 학자들(Andrejevic, 2020; Lyon, 2001, 2018)의 관점을 채택하여, 정보통신기술장치를 매개로 구성되는 돌봄 실천이 ‘감시’의 속성을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2) 다양한 돌봄 관계와 돌봄 실천들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돌봄은 수십 년 동안 주요한 관심사였다(Lynch, 2007; Tronto, 2013; Mol & Hardon, 2021). 돌봄에 관한 논의는 주로 여성들의 지배적인 사회적 역할로 부여되어 온 가사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머피와 패리(Murphy & Parry, 2021)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진영의 가사일을 둘러싼 논의는 '노동' 관점에서 '돌봄' 관점으로 진화해왔다. 먼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으로서 가사일'을 조명한 연구들은 주로 여성에게 불공평하게 강제되어 온 '보이지 않는 노동'을 드러내며, 집안일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재생산 노동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집안일의 불공평한 배분이 성별화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 어떻게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작업에서 가사일은 여성의 삶의 불평등을 가중하는 노동으로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이와 상반되게, '돌봄으로서 가사일'을 조명한 연구들은 가사 노동 과정에서 구성되는 관계와 가치를 강조한다. 즉, 가사노동이 정서적 지지 및 감정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돌봄을 인간의 생존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덕목으로 이해한다.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대표적인 정의로, 피셔와 트론토(Fisher and Tronto, 1990:40)는 돌봄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수리하는 모든 것”으로, 돌봄의 대상은 우리의 몸과 환경을 포괄한다. 돌봄에 관한 논의는 우리가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관계성과 타인-중심의 규범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계적 사고는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원자적 존재론에 도전한다. 노동 관점이 분배의 평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돌봄 관점은 살아가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돌봄 관계의 속성에 더욱 주목한다(Murphy & Parry, 2021, p.1106).

가정용 기술은 오랫동안 기술이 여성을 '노동으로서의 가사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선전하며 가정에 침투해왔다. 돌봄용 기술에 대한 선전도 마찬가지다. 노인 인구 비중의 증가, 아동 돌봄 위기, 그리고 원자화된 가정에서의 정서적 동반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돌봄 기술 산업은 기술이 인간 돌봄의 부재를 대체할 것을 약속한다(e.g. Mol, Moser, & Pols, 2010). 이와 대한 반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실제 노동은 사라지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들은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더욱 안 보이게 할 뿐, 육체적인 인간 노동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다는 주장이다(e.g. Lambert, 2015). 다른 입장은 인간 노동이 사라지는 것은 인정하지만, 노동이 사라지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변화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예컨대, 서치만(Suchman, 2007, p. 217)은 스마트 기계를 둘러싼 문화적 상상과 기술적 실천을 분석하며, “자율적인 기술 행위성에 대한 추구는 인간 노동을 지우는 것으로, 완벽하고 비가시적

인 인프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능 기계에 대한 논의는 서비스 산업의 필요와 결합한다”고 분석한다. 서치만의 분석을 기반으로, 데 라 벨라카사(de La Bellacasa, 2011, p. 93)는 “가정용 지원 기술이 특정한 일상 업무들을 자율적인 행위자(기술)의 평가에 따라 불필요한 과잉으로 규정함으로써 돌봄을 침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의 손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감각을 강조하며, 인간의 손이 제거된 것은 돌봄의 부재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가정용 스마트 돌봄 기술은 거대한 기술 체계에 연결된 ‘자율적인 개인’과 ‘자기충족적인 가구’(self-sufficient household)를 강조한다(Murphy & Parry, 2021, p. 1108). 하지만 앞서 기술하였듯이, 돌봄은 자율적인 주체나 자기충족적인 개별 가구 단위로 실현되지 않는다. 개별 가구는 돌봄 관계가 실천되는 주요한 지점으로,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의 돌봄 관계는 우리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개별 가구의 돌봄 관계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연결망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Murphy & Parry, 2021, p. 1106). 토론토와 피셔의 돌봄 정의에서 드러나듯, 돌봄 학자들은 돌봄 행위를 단지 집안일을 하는 여성에 국한하여 정의해 온 지배적 경향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 속에서 린치(Lynch, 2007)는 돌봄 관계가 작동하는 넓은 연결망을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1차적 돌봄 관계는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애정, 헌신, 관심, 시간/에너지/자원의 물질적 투자를 동반하며 높은 상호 의존성과 타인 중심성을 가진다(예: 가족이나 연인 관계). 이에 비하여 2차적 돌봄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 의존성과 타인 중심성을 가진 일반적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며 공동체나 직장에서의 연대 관계를 구축한다(예: 이웃, 직장 동료, 친척 관계). 3차적 돌봄 관계는 공동체를 위한 자원 봉사, 기부, 세금 납부 등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는 공적인 관계로, 이러한 공적 연대는 사람들을 공적 주체로서 구성한다(Lynch, 2007, p. 562).

이 글에서 주목하는 점은 다양한 차원에서 구성되는 돌봄 관계와 돌봄 노동이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영국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그룹 매트릭스(Matrix)의 ‘공간 만들기(Making Space)’ 프로젝트는 이러한 연결성을 잘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 도시 공간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엄마들에게 수많은 장애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도시 환경은 돌봄 실천에 대한 인식 부족, 이를 위한 제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 등과 같은 공적 돌봄의 부재가 일상에서 1차 돌봄 수행하는 여성들의 고단함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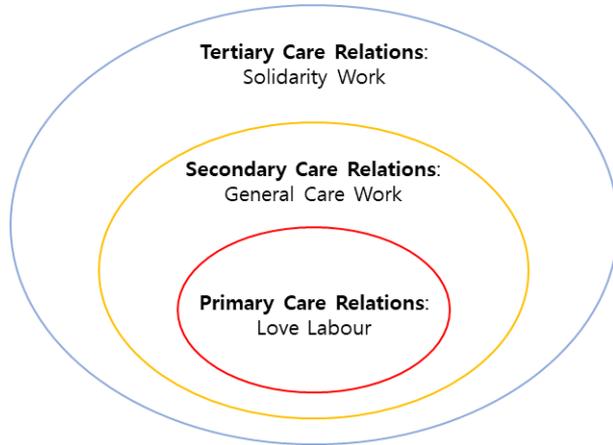


Figure 2. Concentric Circles of Care Relations (Lynch, 2007, p. 556)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이러한 다차원적 돌봄 관계와 돌봄 노동의 연결성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공공시설 이용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2, 3차 돌봄 관계 속에서 수행되었던 돌봄 노동이 급격하게 축소되었고, 이는 1차적 관계에서 담당해야 하는 돌봄 노동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 글은 공적 활동이 광범위하게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미디어 기술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돌봄 실천’(care practices)의 양식과 속성을 탐사한다. 여기서 ‘돌봄 실천’은 단지 인간행위자의 행위에 제한되지 않는다. ‘실천’(practices)이라는 용어는 유럽 인문 사회 전통에서 1980년대부터 구조와 행위자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시도 속에서 학문적인 용어로 정착하였다. ‘실천 연구’는 하나의 완결된 구조나 체계로서의 사회(society)가 아니라, 거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사회(the social)을 탐사하는 것이다. 초기 실천 이론과 접근은 주로 인간 행위자의 실천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e.g. Bourdieu, 1984; de Certeau, 1988; Giddens, 1984). 기술 연구 분야는 실천을 ‘인간들의 행위’에만 제한하지 않고, ‘비인간적 요소들의 행위’까지 적용함으로써 연구의 지평을 넓혔고(e.g. Latour, 2006), 2010년대 이후 기술 연구 분야에서 돌봄 실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관련 연구가 확장해왔다(Martin, Myers, & Viseu, 2015; Murphy, 2015; Murphy & Parry, 2021; de La Bellacasa, 2011, 2017).⁴⁾

4) 특히 데 라 벨라카사(de la Bellacasa, 2011, 2017)는 브르노 라투어가 제시한 ‘관심의 문제(matters of concern)’를 ‘돌봄의 문제(matters of care)’로 바꿀 것을 제안하며, 기술연구 분야에서 돌봄 관점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기술 돌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술적/문화적 연결망 속에 조립되고 있는 새로운 양식의 기술 돌봄 실천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기술 연구 접근 방식을 미디어 연구에 접목한 미디어 일상 연구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미디어 일상 연구는 일군의 영국 미디어 학자들이 기술 연구와 일상연구를 접목한 접근법으로, 집이라는 공간에서의 민속지학적 연구를 통해서 ‘기술의 가정화’(domestication) 과정을 탐사했다(Berker, Hartmann, Punie, & Ward, 2005; Morley, 2000; Silverston, 1994). 기술의 가정화는 특정한 기술이 집이라는 영역에 도입되는 과정과 도입된 이후 집이라는 영역에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지칭한다. 이들은 미디어가 집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 접목되는 과정을 넓은 사회구조적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자 시도하며,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끊임없이 더 넓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변화와 맞물려 재구성되며, 이러한 과정을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밝혔다. 이 연구는 미디어 일상연구 접근 방식을 가정용 감시 기술의 가정화 과정을 탐사하는데 적용하였다.⁵⁾

3. 팬데믹 시기 집과 돌봄 실천의 재구성: 세 가구의 이야기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일상과 돌봄 실천의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 장은 2년간(2020-2022) 수행한 연구에 참여한 가구들 가운데 세 가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팬데믹 시기 국내에서 개별 가구들이 어떻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상이하게 돌봄 위기에 대응하며 일상과 집을 재구성하며 돌봄 실천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자가 초등학생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구축한 2차적 돌봄 관계망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연구자가 아이를 데리고 국내외적으로 이동하며 구축한 관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요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연구자가 경기도 중소도시에서 7년간 아이를 키우며 만났던 사람들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참여 과정에서 학부모로 만나서 보통 ‘○○엄마’로 부르며, 가끔 카톡으로 안부를 묻거나 아이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며 수년간 느슨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이다. 두 번째 집단은 연구자가 2019년 미국 동부 지역에 방문학자로 체류하며 형성한 돌봄 관계망이다. 당시 연구자의 아이를 미국 공립 초등학교에 보내며 한국인 자녀를 둔 한국 엄마들과 교류하였는데, 특히 같은

5) 미디어 일상 연구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저자의 줄고(채석진, 2016) 참고.

거주 단지에 살던 세 가구(모두 장기 미국 체류자)와는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2020년 1월 한국에 귀국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였다. 연구자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들과 계속 연락하며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의 어려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연구 참여자가 되었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연구자의 아이를 매개로 형성한 2차적 돌봄 관계망을 통해 연구한 '친밀한 민속지학'(채석진, 2016)의 형태로 구성되었고,⁶⁾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다양한 장소(거리, 공원, 집, 소셜 미디어 등)들이 연구 현장이 되었다. 연구 기간 동안 연구자가 아이를 키우며 국내외적으로 이동하였듯이, 연구 참여자들도 그러하였다. 첫 번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 해외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집단도 미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팬데믹 시기 미국 초등학교가 전면 폐쇄되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았던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요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한 공적/사적 돌봄 관계망에 속하여, 그에 대응하는 돌봄 규범과 실천을 하고 있었다. 특히 사적 돌봄 실천의 규범과 방식은 참여자들이 속해 있는 공적 돌봄 실천의 규범과 방식에 조응하며 형성된다. 예컨대, 참여자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대표적인 공적 돌봄 기관인 학교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행동 규범, 대학입시 전략 등도 달랐고, 팬데믹 상황에서 마주하는 상황도 시기별로 달랐다. 돌봄 관행과 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범에서도 거주하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미디어 사용이 큰 거부감없이 수용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 연구자가 잠시 속했던 돌봄망에서는 아이들에게 휴대폰은 물론이고 텔레비전 시청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돌봄 실천은 이들이 속해 있는 상이한 '장'(field)(Bourdieu, 1984)의 영향력 속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참여자들이 속해 있는 장에 따라 어떻게 돌봄 실천이 구성되는지에 주목하였다.

이 장에서 기술하는 세 가구는 첫 번째 집단에 속하는 참여자들로, 세 가구 모두 팬데믹 기간 전후로 수도권(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연구자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엄마들과 연락했던 주요한 이유는 아이들을 함께 놀 수 있게 해주기

6) 지배적인 민속지학 연구는 연구자가 속하지 않은 타집단에 들어가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친밀한 민속지학'(intimate ethnography)은 연구자가 속한 친밀한 관계망을 통해서 연구 참가자들의 친밀한 관계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한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저자의 줄고(채석진, 2016) 참고.

위해서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자, 서로의 집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이들이 노는 동안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학교 등교가 중단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지 등이 주요 이야기거리였다. 이러한 상황들은 가정용 감시기술과 돌봄 실천의 변화에 대해서 관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연적인 셋팅’(natural setting)을 제공하였다. 또한 오래된 관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연구자는 정보원들의 사적인 공간인 집에 진입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아이들이 노는 시간에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며 전반적인 이해를 쌓은 후,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전화와 서면으로 추가 인터뷰를 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팬데믹 전후로 어떻게 일상이 변화하였으며(팬데믹 이전 일상과 이후 일상이 어떠한지 질문),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를 돌보았는지에 대한 개방형 질문으로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산경험’(lived experiences) 속에서 재구성되는 돌봄 실천의 양식과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래에 기술하는 세 가구의 이야기는 이들의 일상 변화와 기술을 매개로 한 돌봄 실천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개별 가구들은 서로 다른 삶의 조건 속에서 팬데믹 시기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차이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엄마들이 ‘주양육자’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다.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밝히고 있듯, 한국에서 팬데믹 시기 공공 돌봄의 대폭적인 감소는 집에서 아동 돌봄을 담당하는 엄마들의 몫으로 떨어졌다(최이숙·황선영, 2022).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공공 교육이 집의 영역에서 운영되는 과정은 집에서 24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을 전제로 구성 및 작동하였고, 전통적으로 아동 돌봄자로 상정되어왔던 엄마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받았다. 연구에서 발견한 점은 실제 많은 가구들에서 엄마들이 이러한 역할을 온전하게 담당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살고 있지 않고, 이러한 기대되는 역할과 가능한 역할 간의 간격을 메우는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감시기술을 도입하여 돌봄 실천을 하고 있었다. 이 장은 ‘전업 주부’, ‘직장맘’, ‘자영업맘’의 상이한 위치 속에서 돌봄을 수행하였던 세 엄마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개별 가구들이 각각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 일상과 돌봄 실천을 재구성하였는지를 기술한다.⁷⁾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이름, 직업, 사는 지역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였다.

7) 이 논문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지식은 개별 가구의 독자적인 경험을 드러내는 것으로, 개별 가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급, 세대, 지역 등의 특정한 사회적 항목으로 분류되는 집단의 경험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야기를 통한 지식 생산에 관한 논의는 채석진(2021a) 참조.

1) 현서네 이야기: “저는 아이가 제 눈 앞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현서네는 오랜 기간 주말 부부로 살아왔다. 아빠는 지역 대학에서 일하며 주중에 지역에 머물다 주말에만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현서네는 경기도 중소도시에서 살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에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왔다. 엄마는 미술을 전공하여 결혼 전까지는 개인 레슨을 하다 출산 후에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고 있다.

팬데믹이 시작된 것은 현서가 2학년으로 올라갈 때였다. 팬데믹 이전에는 학교가 끝나면 거의 매일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았는데, 이 시간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엄마들의 사교 시간이기도 했다. 팬데믹이 시작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과 함께 엄마들과의 사교 활동도 멈췄다.⁸⁾ 대신 팬데믹 기간동안 아빠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며 가족 모두가 함께 생활하였다. 아빠가 집안일이나 아이 공부 봐주는 것을 많이 분담해주었지만, 주말 부부로 생활하다가 함께 생활하면서 엄마의 일도 많아졌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의 비대면 수업을 돕는 것은 팬데믹 시기 엄마에게 새롭게 부과된 주요한 업무였다.

선생님들도 줌수업이 처음이었고 아이들도 어리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어 계속 신경을 써줘야 했어요. 줌수업을 6-7시간 듣는 경우도 많았는데, 거실에서 아이가 줌수업 하는 동안 저도 안 보이는 곳에서 멀서듯 옆에 있어야 했어요. 수업 과목 확인해서 책하고 노트를 챙겨주고,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하면 “지금 써야지”, 아이가 자세가 틀어지면 “똑바로 앉아”. 동시다발적으로 말하면 선생님께서 못 알아들으시니까 “손을 들거나 채팅으로 말해”라고 해주고.

팬데믹 기간동안 현서네 집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거실이 줌수업을 매개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포개지는 이중 공간으로 전환된 것이다. 줌수업 동안 아이는 물리적으로는 ‘집’의 사적 영역에 머물면서 동시에 ‘학교’라는 공적 공간에 속하는 규범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받는다. 교사와 학습생들이 함께 머무는 물리적 공간이 없는 곳에서,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엄마의 주요한 역할이었다. 하지만 현서 엄마는 수업에 공식적으로 초대받지 않은 사람으로, 줌 화면이라는 무대 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화면 밖의 무대 뒤에서 아이가 적절

8)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집 저집 옮겨 다니곤 했어요. 엄마들도 다 같이. 인사 한번 안 해 본 어머니까지 저희 집에 올 때도 있고, 누군가가 맥주를 사 와서 밤늦게까지 놀 때도 있고, 그러다 코로나가 시작되고는 아이가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도 못 만나니까 굉장히 답답했었어요. 레고를 하거나 혼자 놀아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죠. 제가 놀아주긴 했지만 친구랑 노는 거랑은 다르니까.” (현서엄마)

하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그림자 노동을 수행하였다.⁹⁾

팬데믹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며 학교 수업이 점진적으로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웠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서의 일과는 학원 수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아이의 학원 일정과 숙제를 챙기는 것이 엄마와 아빠의 주요한 일과가 되었다. 현서의 일과는 보통 저녁 6시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부모와 함께 학원 숙제를 하는 ‘공부’ 중심으로 편성되었다(〈Table 1〉참고).

Table 1. Hyunseo's Daily Schedule (as of 2021-2022)

	Mon	Tue	Wed	Thu	Fri	Sat	Sun
9.00-14.00	School						
						Soccer	
15.00	English	Math	English	Math	English		
16.00							
17.00	Swimming		Math		Swimming		
18.00		Skating		Skating			
18.00-19.00	Dinner						
19.00-21.00	Homework						
21.30-22.00	Online English Speaking						
22.00-23.00	Reading						
23.00-24.00	Go to bed						

매일 2시간 이상씩 투자되었던 학원 숙제는 부모님이 개별적으로 현서 공부를 도와주는 시간이다. 현서 부모님은 현서가 수학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의 빠른 설명을 아이가 못 알아들을 때마다 다시 설명해주고, 문제 푸는 것을 도와주고, 정답을 온라인에 올려서 확인하고 추가 문제 풀이를 하는 것까지 도왔다. 아이의 영어 숙제를 돕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아이가 영작이 약해서 많이 도와 줘야해요. 디베이트(토론) 수업이 있는 날에는 5시간 이상 도와주기도 했어요.” 팬데믹 기간 내내 현서 엄마의 일과는 다음과 같이 아이의 공부 패턴에 맞추어 조밀하게 운영되었다.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8시에 아이를 깨워서 9시부터 수업 듣게 하고, 그

9) 연구자 또한 팬데믹 기간에 아이의 줌수업을 보조했는데,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줌수업이 시작하여 대부분 편안한 복장(예컨대, 잠옷)으로 화면에 안 보이도록 무릎으로 기어 다니며 아이를 챙기곤 했다.

사이 빨래, 청소,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해요. 12시부터는 점심 준비를 해서 먹이고 오후 수업 동안 시장 다녀오고, 수업이 끝나면 간식을 챙겨주고 나머지 소리 나는 집안일, 청소 기 돌리기 같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는 보통 아이 숙제를 봐주고 저녁 준비하고 치우고 아이 화상영어를 챙기고 책 읽기 같이하고, 아이 재우고 난 다음에야 제 자유시간이 되죠. 아이를 재우고 2-3시까지 저 혼자 티비도 보고 차도 마시다 자요. 전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 재우고 혼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항상 잠이 모자라요. 하루종일 식구들과 부대끼는 것만으로 힘들었어요.

위 인용문은 현서 엄마가 수행하는 다양한 돌봄 실천과 '24시간 돌봄 노동'의 고난함을 보여준다. 현서 엄마는 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계속 이러한 밀착 돌봄 노동을 수행하였는데, 심층 인터뷰에서 현서 엄마가 드러낸 가장 큰 고민은 24시간 돌봄 노동의 고단함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밀착 돌봄을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현서 엄마는 아이가 하는 일들을 끊임 없이 눈 앞에서 확인하고자, 등학교는 물론이고 현서가 놀이터에서 놀 때도 옆에 앉아 있고,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았다. 하지만 현서가 크면서 점점 더 이러한 행동들을 불편해 하였고, 3학년 이후에는 등학교도 혼자하고, 중수업도 자신의 방에서 혼자 참여겠다고 요구하였다. 현서는 "3학년이나 되어서 엄마랑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하기도 했고, 엄마가 감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다"고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현서 엄마는 현서가 등학교를 혼자 하게 허락하였고, 비대면 수업도 방에서 혼자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신 "문을 열어두고 휴대폰을 놓고 가게 하고, 방문 앞에서 귀를 쫑긋 세워 애가 줌 화면 옆에 유튜브를 틀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채팅하는지 체크했다."

현서가 등학교를 혼자 하면서, 부모와 연락하는 용도로 현서에게 휴대폰을 마련해주었다. 현서 휴대폰은 아빠 휴대폰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사용해서 쓰는 것으로, 별도로 현서의 전화번호가 없고 카카오톡으로만 통화가 가능하다. 현서는 '자기 휴대폰을 따로 갖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서' 허락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휴대폰 있는 아이들끼리 단톡방을 만들고 한 아이를 왕따를 한 적이 있어요. 괜히 현서가 그런 단톡방에 있다가 걸릴까봐. 아예 핸드폰이 없으면 그런 일에서 보호가 되지 않을까... (연구자: 그럼 현서는 어떻게 친구들과 연락해서 노나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친구랑 주로 놀아서 학교 안 갈 때는 아파트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만나고, 코로나로 다른 동네에 사는 모르는 아이들하고 어울리

지 않게 된 것은 오히려 좋아요.

현서 엄마는 현서가 친구들과 휴대 전화로 연락해서 노는 것은 통제하는 것과 함께, 현서가 공부 이외의 용도로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하지만, 현서는 뽀뽀하게 짜여진 ‘생산적인’ 일정 속에서 최대한 이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처음엔 주말에만 (유튜브와 게임을) 할 수 있게 했더니 주말에 어디 안 가려고 하고,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몰래 보더라고요. 집에서 망원경으로 아이가 혼자 학원 가는 걸 지켜 보는데, 길 가면서도 몰래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그러면 약속을 어겼으니 핸드폰 할 수 있는 시간을 두 시간 정도 깎고. 그래도 워낙 하고 싶어하니 계속 시간이 늘어서 지금은 평일에 1시간, 주말에 3시간 정도로 허용하고 있어요. 더 이상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아이가 눈 앞에 있는 게 편해요. 저는 아직도 아이를 끼고 모든 것을 봐주고 싶었는데 아이가 더 이상 원하지 않으니깐 점차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방에서 화상 수업을 하더라도 끈이 놓아지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일하는 엄마의 부재로 정이 고팠는데, 현서는 그런 거를 원치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옥죄었나? 너무 붙어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힘들고 피곤하긴 한데, 항상 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서 보호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놀이터 옆에 앉아 있었어요.

현서네는 최근에 아빠가 일하는 지역으로 이사 갔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현서 아빠의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돌봐드리기 위해서이다. 그 지역에는 현서 엄마의 부모님도 살고 계시고, 시댁, 친정, 남편 직장에서 각각 10분 떨어진 곳으로 집을 구했다. 마지막 인터뷰 때, 현서 엄마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돌봄 노동에 양가 부모님을 돌보는 일까지 더해지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현서 돌보는 것도 큰 고민이었다. “지금 은 학교와 학원이 다 멀어다닐 수 있는 거리여서 별문제 없지만, 이사가서 차 타고 학원을 다니게 되면 핸드폰을 사줘야하지 않을까? 그럼 2G 폰을 사줘야 하지 않을까요?”

2) 준우네 이야기: “집에 미디어가 너무 많아요”

현서 엄마에 따르면, 학교 줌 수업에서 부모가 아이 옆에서 지도해주는 경우는 절반 정도였다고 한다.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는 아이가 늦게 일어나더라도 제시간에 맞추어 수업에 참여하게 돌보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준우네는 그러한 맞벌이 가구 가운데 하나이다.

준우네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IT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에서 살다가 몇 년 전 아빠 직장이 있는 경기도로 이사를 하면서 지금 사는 아파트를 샀다. 엄마 직장은 서울이어서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려 통근을 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엄마가 탄력근무제(아침 8시 출근 - 5시 퇴근)를 신청해서, 아빠가 아침에 두 아이(첫째 준영, 둘째 준우)를 등교 시킨 후 출근하고, 엄마가 6시에 집에 와서 저녁 식사 준비, 집안일, 아이들 숙제 확인 등을 했다. 엄마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들은 ‘학교(정규수업+돌봄교실) - 방과후 수업- 학원’으로 이동하며 생활해왔다. 학원은 영어, 논술, 태권도, 미술, 축구 등을 다니고 국어/수학 학습지, 학교 방과후 수업을 했다. 6시에 퇴근하여 엄마가 저녁을 준비할 동안 아이들은 티비를 보며 놀다가 저녁 먹고, 숙제하고, 조금 놀다가 10시 30분정도 잤다. 주말에는 첫째는 역사체험, 둘째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야외활동을 했고, 가족 나들이나 여행을 가곤 했다. 외출을 안하는 주말에는 늦은 아침을 먹고, 숙제하고 오후에는 게임을 하면서 보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준서 엄마가 구축한 돌봄 네트워크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학교 돌봄 및 방과후 수업이 중단되고, 학원들도 대면 수업을 중단했고, 체험학습과 나들이도 중지되었다.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 준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준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챙겨주기 위해서 엄마는 근무시간을 ‘아침 10시 출근 - 저녁 7시 퇴근’으로 조정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첫째는 주로 EBS 방송을 중심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서, 첫째는 노트북으로 e-학습터를 시청하고, 둘째는 텔레비전으로 EBS 수업을 시청하면서 태블릿을 사용해서 중간에 과목에 따라 연계된 유튜브 동영상은 시청하였다. 고학년인 첫째는 이미 학습 태도 등이 잘 잡혀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학년인 둘째는 혼자 집중해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따라 하는 것이 어려웠다. 현서 엄마와 달리 옆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준우 엄마는 출근 후 SK 브로드밴드 홈케어 서비스로 아이가 EBS 수업이 아닌 다른 채널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막고, 줌수업을 할 때는 컴퓨터 카메라를 통해서 회사에서 준우가 줌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코로나 첫째는 아이 두 명이 모두 초등학생이어서 첫째가 둘째를 챙기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 점심 식사도 엄마가 챙겨놓거나 간편식이나 조리된 반찬을 배달시키면 첫째가 챙겨서 둘째와 같이 먹었다. 코로나 두 번째 해에는 첫째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아이 둘의 일정과 동선이

달라지면서, 둘째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다행히 학교에서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도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오전에 비대면 수업을 듣고 점심에 학교 급식을 먹고, 집에 왔다가 오후에 학원을 갔다. 문제는 학원 셔틀 버스를 제 시간에 타는 것이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돌봄 선생님이 시간에 맞추어 아이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학교 돌봄 교실이 중단되면서 준우는 혼자 집에 있다가 학원 시간에 맞추어서 이동해야 했다.

학교 온라인 수업 끝나고 남은 시간은 집에서 놀다 오후엔 학원에 다녔어요. 학교 돌봄과 방과후 수업이 없어지면서 남은 시간이 많아져서 이 시간에 티비 시청과 유튜브 시청이 늘어났어요. 게임도 주말에만 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잘 안 지켜졌고. 티비 보다가 학원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서 못 나가는 때가 많았어요. [.....] 3학년 때는 회사에서 제가 전화 받기가 민망했어요. “준우가 또 안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연락해볼게요.” 회사 사람들이 옆에서 “준우가 또 안 나왔어요?” (웃음). 회사에 준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분한테) “니가 잘못했네” 그리고 (웃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와요. “준우가 안 왔어요.” 하루는 아침에 일이 있어서 일찍 출근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줌수업에 안 들어왔어요.” 이러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하루에 두세통씩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급기야 엄마 몰래 학원도 결석해서 학원 선생님께 결석하면 문자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엄마는 준우가 유튜브와 게임을 하느라 학원 시간도 못 맞추고 숙제도 안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2년 동안 유튜브 시청과 게임 시간은 엄마와 준우가 격렬하게 충돌해온 전쟁터이다. 준우 엄마는 컴퓨터 전공자로 미디어 기술 환경에 대한 다양한 통제 프로그램을 잘 알고 활용해왔다. 하지만 다양한 ‘디지털 아동 보호 장치’들이 현실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의 진술은 팬데믹 시기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아이의 유튜브 시청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준다.

일단 집에 미디어가 너무 많아요. 컴퓨터만이 아니라 태블릿, 휴대폰, 텔레비전, 모든 기기에서 유튜브에 접근이 되니까. 인터넷을 막는 방법은 호스트를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제정이 못 들어가게 막거나.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학교 수업에서 유튜브 링크를 열어서 봐야 하는데 수업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막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세이프티 같은 거에 가입해서 유튜브 사이트를 막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요청이 와서 내가 허용해야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던가, 마이크로 옛지 그런 거는 사용 못하게 다 막아야해요. 그런데 (마이크로 옛지를 막아도) 크롬으로 들어가면 안 막혀, 파이어 폭스로 들어가면 안 막혀. 그러니까 일일이 다 막아야 하는 거예요. 앱은 또 달라요. 앱은 앱대로 다른 어플을 써요.

준우 엄마에게 인터넷 관련 기업에서 제공하는 세이프 장치들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다. 부모가 어떻게 막으려고 하든지 아이는 접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는 창의성을 발휘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카톡 사건'이다. 여러 가지 조치를 시도하다 엄마는 결국 집에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들에서 유튜브 접근을 전부 차단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준우는 카카오톡 채팅을 타고 접근해서 유튜브를 시청했다.

저랑 연락하려고 카톡을 깔았어요. 준우가 알요금제여서 통화량 데이터 한도가 있으니까 집에서는 와이파이로 연락을 하라고 카톡을 열어준 거지요. 엄마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연락 안 되면 카톡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카톡으로 유튜브를 보네. 기상천외해. 메신저에 누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열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걸 타고 들어가서 유튜브를 본 거죠.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자기가 보던 것들이 자동으로 다 뜨니까.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시도해봤다. 하루에 보는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만큼 벌칙으로 회초리를 맞기로 하였다. 벌칙이 100대에 달했을 때, 준우 엄마는 약속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자 실제 체벌을 하였다. 하지만 체벌 또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카톡 사건'과 '100대 사건'을 겪고 나서 엄마는 준우가 유튜브와 게임 하는 것을 막는 것을 포기하였다.

100대 때리고도 안 되길래 포기했어요. 대신 니 할일만 해라. 볼 거면 차라리 핸드폰으로 보지 말고 눈이라도 안 나빠지게 큰 화면으로 티비로 봐라. 실제 제가 시청 시간을 체크를 못해요. 이게 계정이 하나면 몰라요. 아빠 계정, 엄마 계정, 애 계정. 내가 때번 일일이 다 합산하고 다녀야 해요. 티비에서는 몇 시간 봤어, 핸드폰으로는 몇 시간 봤어, 노트북으로는 몇 시간 봤어. 스크린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계정도 많아요. 기록은 남잖아요. 몇 시간 봤다는 시청 기록은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 핸드폰으로는 몇 시간 봤고, 티비로는 몇 시간 봤고, 태블릿으로는 몇 시간 봤고... 아휴 나도 지치는 거지요. 대신 애가 오늘은 학교에

서 돌아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었을 거니까 그냥 예측하는 거지요. 학원을 보내니까 6시부터 엄마가 올 때까지 두 시간 봤는데 이런 식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준우 엄마는 아침에 아이들 줌수업을 챙기고 10시에 출근하는 대신 퇴근 시간이 7시로 늦춰지면서, 보통 8시에 넘어서 집에 돌아왔다. 아빠가 6시 반 정도 귀가해서 저녁을 먹이고 엄마가 집에 올 때까지 아이들을 본다. 아빠는 엄마와 달리 유튜브 시청이나 게임에 너그러운 편이라고 한다.

아빠는 오히려 보여주는 편이에요. 편하잖아요. 자기도 놀아주는 것보다 자기 일하면 되니까. 자기도 쉬고 싶으니까. 인정하죠. 저도 쉬고 싶으니까. 물어는 봐요. ‘숙제는 했지?’ 그럼 아이는 항상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했으면 가지고 와봐.”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준우 엄마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준우가 학습 능력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 형성이 늦어지는 것이었다.

학습 평가서에 ‘노력 요함’이 여러 과목이 나왔어요. 큰애는 이맘때 대화도 되고 할 일도 다했던 것 같은데, 애는 “숙제 다했어?” 라고 물으면, “응 다했어” 하고 딱짓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영어는 매일, 피아노는 세 번, 미술 한 번, 축구 한 번, 방과후는 요리랑 보드게임하고, 그러고는 눈높이 수업은 국어랑 역사랑 수학하고. 하루 2-3개씩 해서 저녁 6시까지 딱세게 돌리는 거죠. 그래도 중간에 틈이 생기면 그때 안 맞춰서 가는 거야. 맨날. 그래서 힘들죠.

큰애는 2, 3학년 때 친한 친구가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준우는) 안 생기더라고요. 큰 애 때는 4학년 때 동네 남자애들끼리 그룹이 형성되어서, 맨날 누구네 집에 가서 놀아 누구네 가서 놀아 그랬어요. 근데 애(준우)는 없어서 내심 걱정이 되어요. 누구네 집 가고 싶어하고 누구랑 놀고 싶어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래 형성 과정이 늦어진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특히 동네 친구가 오래가고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언제까지 쫓아다녀요. 지들이 알아서 크는 거지.

준우 엄마를 인터뷰하던 날, 준우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축스러운 듯 엄마 등 뒤에 딱 달라

붙어 있었다. 준우 엄마의 바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준우네는 맞벌이지만 재택근무나 탄력 근무를 많이 보장해준 직장이어서 위급 상황에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능했다. 아이 둘과 준우 엄마가 차례로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준우 엄마는 거의 한 달을 재택근무를 하였다. 하지만 탄력 근무나 재택 근무가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은 많은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었다.

3) 수미네 이야기: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수미네는 부부가 모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내내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던 집이다. 수미네는 몇 년 전 지금 사는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서울 강동구로 이사를 왔다. 오랜 기간 아빠가 개인 과외를 하는 것만으로 생활을 해서 불안정한 수입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아이스크림과 복권을 같이 파는 조그만 상점을 시작했다. 상점을 시작하고 몸은 고되지만 경제적 상황은 훨씬 안정되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상점이어서, 부부가 주간과 야간을 교대로 일하였다. 수미 아빠는 저녁 시간에 과외도 병행하고 있어서, 아빠가 오전에 가게를 보고, 엄마가 주로 저녁 시간에 가게를 보고, 복권 손님이 몰리는 토요일은 부부가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일하였다. 아빠 몸에 무리가 생겨서, 몇 달 전부터는 일요일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저녁 6시까지 맡기고, 아빠는 하루 쉬고, 엄마가 저녁 6시에 교대하여 저녁 장사를 한다.

상점을 시작한 시기와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초등학교 딸을 돌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수미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수미는 보통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오전에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학원(수학, 요가, 논술 등)을 간다. 보통 6시에 끝나는데, 논술 수업이 있는 날은 밤 10시에 집에 온다. 학원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수업마다 2-3명 학생만을 데리고 소규모 공부방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다. 학원에서 돌아와서는 학원 숙제를 하고, 저녁마다 3시간 정도 분량의 온라인 영어 공부(주 5회)를 한다.

수미 엄마는 대부분 집에 저녁 5시 정도까지는 있지만, 수미와 실제 보내는 시간은 대단히 적었다. 보통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집에 오면 12시가 다 되었다. 씻고 집안일을 하다가 새벽 2-3시에 잠을 자서, 오전 11 시정도 일어난다. 그 사이 수미는 9시에 일어나서 혼자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원을 간다. 수미가 학원에 갔다 돌아오는 시간에는 엄마는 대부분 집에 없다. 엄마가 가게에 출근하고,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 동안 수미는 집에 혼자 있는 다(짧게는 20분 길게는 2-3시간). 수미네가 거실에 처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이 시간 때 문이었다. 감시 카메라는 아무도 없는 집에 수미가 혼자 잘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수미가 혼

자 학원 숙제와 영어 공부를 집중해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인터뷰 도중에 수미 엄마가 보여준 휴대전화기에는 감시 카메라와 연동된 두 개의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나는 KT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KT 통신업체가 휴대폰에 가정용 카메라 CCTV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기존 휴대폰 요금에 1만 원 정도 추가 요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수미 엄마는 유료 가정캠을 가게에 설치해서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 다른 앱은 집 거실에 설치한 카메라와 연결되어 있다. 집에 있는 카메라는 공기계 휴대폰을 이용한 것으로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다. 거실 천장 한구석에 공기계 휴대폰 카메라를 24시간 켜두고 생활한다. 수미 엄마가 외부에 있을 때 거실에 있는 수미에게 이 휴대폰을 통해서 직접 말을 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가정용 캠 앱으로 수미 엄마는 가게와 집을 오가며 자신이 부재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미 엄마는 “몸이 두 개면 좋겠다”라고 한다.

다른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수미 엄마도 온라인 수업 상황 속에서 유튜브 시청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주요한 고민이었다. 수미의 휴대폰은 유튜브 접근이 완전 차단되어 있고, 카톡 사용도 하루에 2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전에는 국산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사용했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아동 보호용 차단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폰으로 교체하였다. 수미가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앱은 ‘지니뮤직’으로 주로 BTS 노래를 듣는다.

수미가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거실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만이다. 수미는 아침에 일어나면 곧장 거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원을 다녀와서 매일 저녁 해야 하는 영어 수업도 거실 컴퓨터에서 한다. 수미 엄마가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처음에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수미가 동의한 것은 거실 카메라가 있으면, 혼자 있을 때 자기도 무섭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였다. 엄마는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거실에 설치한 카메라로 수미를 지켜보기도 하고, 곧바로 말을 할 수도 있어서” 편리하다고 했다. 하지만 수미의 경험을 달랐다. 수미는 거실 카메라를 달았던 초기 경험 가운데 기억나는 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조금 부끄러운 일인데... 하루는 제가 욕실에서 씻고 발가벗고 거실에 누워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서. 그런데 거실 카메라에서 갑자기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꼼작도 안하고 그냥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미는 집에서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는 사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감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싫었어요. 하루는 카메라를 풍선으로 가렸다고 혼나기도 했어요. 카메라 렌즈가 흐려지게 하기도 했는데 며칠 후에 괜찮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컴퓨터로 해야 하는 영어 숙제 말고, 다른 것은 전부 제 방에서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방에도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땐 (감시 카메라가 없는) 안방에 가서 했어요. 그리고 제 방에는 카메라 달지 말라고 말해서, 결국 제 방에는 카메라를 뺐어요. 그 후로는 대부분 숙제는 제 방에서 해요.

수미는 자신이 공부할 때 엄마나 아빠가 지켜보거나 칭찬하는 것이 너무 싫다고 한다. 수미에게 거실 카메라는 그러한 부모 시선의 연장으로 느껴진다고 한다.

옆에서 가끔 보는 것도 싫은데 카메라는 끊임없이 지켜보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공부할 때는 아예 안 보면 좋겠어요. 칭찬하면 오글거려요. 같은 집에 있어도 그냥 엄마 아빠는 자기 일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은 안 보면 좋겠어요. 내 공부는 혼자 했으면 좋겠어요. (채점도?) 채점은 학원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거나 노래하는 거는 더 많이 지켜보고 칭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니까.

흥미로운 점은 수미가 두 가지의 종류의 “지켜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하나는 수미가 “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는 영어, 수학, 국어 공부하는 것을 지켜보는 시선(면대면 시선과 이러한 시선의 확장인 감시 카메라)이고, 다른 하나는 수미가 “좋아하는 것”인 만들기과 노래하는 것을 지켜보는 시선이다. 수미는 전자의 시선이 과하게 많다고 인지하고 이를 거부하는 반면, 후자의 시선의 부족함을 말하며 요청한다. 거실 카메라를 설치하고 2년 넘게 생활하면서, 수미는 감시 카메라에 매우 익숙해졌다고 한다. 또한 앞서 기술했듯이, 수미 나름대로 집 내부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해왔다. 지금 수미는 거실 카메라를 떼는 것도 싫다고 한다. “혼자 있는데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해요.” 거실 카메라가 자신의 안정을 지키는데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수미의 두 가지 시선에 대한 구분은 우리에게 ‘돌봄’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수미 엄마가 거실 카메라를 돌봄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반면, 수미는 거실 카메라를 돌봄의 장치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수미에게 거실 카메라는 자신의 ‘안전’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카메라를 매개로 전달되는 시선과 목소리는 감시이지, 수미가 원하는 관심이나 돌봄은 아니다. 수미에게 거실 카메라는 오히려 돌봄의 상실로 경험된다. 인터뷰 초반에 수미에게 거실 카메라를 설

치하기 전과 설치 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물어보았을 때, 수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었다. 얼굴을 소매에 묻고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울음이 점점 더 커졌다. 한참을 울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예전엔 항상 셋이 집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 너무 많이 있어요. 예전엔 같이 눈사람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눈싸움도 같이 못 하고 눈사람도 같이 못 만들어요.

최근 수미 엄마의 휴대폰에는 또 다른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연동되었다. 이 카메라는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부모님 댁에 설치한 것이다. 수미 엄마는 자주 직접 찾아가서 살피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시 카메라 녹화본을 돌려보며 부모님이 어떻게 생활하며 상태는 어떠신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나마 안심이 된다고 한다.

4. 팬데믹 시기 돌봄 관계의 재구성

이 장에서 기술한 세 가구의 사례는 팬데믹 시기의 돌봄 위기 속에서 개별 가구들이 아동을 돌보려는 시도와 가정용감시기술의 확산이 어떻게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 가구는 팬데믹 이전에 다른 일상과 돌봄 관계를 구축하며, 2·3차적 돌봄 노동의 급격한 축소 속에서 증폭한 1차적 돌봄 노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정용 감시 기술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서네는 부모가 모두 집에서 생활하며 전통적인 면대면 감시를 기반으로 한 돌봄을 주로 수행한 반면, 준우와 수미네는 면대면 돌봄 노동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감시기술들을 채택하여 간극을 채우고자 하였다. 예컨대, 공교육이 줌으로 매개되면서 엄마에게 기대되었던 ‘보이지 않는 교사’의 역할은 각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현서네는 물리적으로 부재한 교사를 대신하여 줌수업으로 매개된 사회적 공간에서 아이가 적절하게 준비하고 행동하도록 실시간으로 대면 지도했다. 학교의 대면 수업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큰 공백은 단순한 지식 전달 부족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울 기회이다.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것은 부르디외가 ‘신체화된 문화자본’으로 표현한 것으로, 현서 엄마는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훈육하는 돌봄을 수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아이가 집에서 수업을 듣는 동안 같은 공간에서 공현존(co-presence)할 수 없는 ‘일하는 엄마들’은 일터에서 가정용 감시기술을 활용하여 아이

들이 수업에서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지도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처럼 면대면 돌봄을 기반으로 한 훈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매개로 한 감시 돌봄이 채택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가구의 엄마들은 모두 '24시간 돌봄'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주양육자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었다. 머피와 패리(Murphy & Parry, 2021)는 지속발전가능 기술들이 집에 도입될 때 어떠한 공간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전통적인 성별화된 역할분담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예컨대, 야외에 설치될 경우에는 남성에게 할당되는 일이 많 것이고, 거실에 설치될 경우 여성의 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과 강력하게 결합된 남성성 또한 영향을 주어서, 가정용기술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의 참여가 확산된다고 말한다(Murphy & Parry, 2021, p. 1105). 팬데믹 시기 가정용감시기술이 세 가구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유사한 특성이 보인다. 한국에서 아동 돌봄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주요한 사회적 역할로 규정되고 수행되어왔다(Park & Abelman, 2004).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줌을 매개로 학교와 학원 수업에 참여했던 거실이라는 공간은 지배적으로 엄마들의 영역이었다. 반면 디지털 기기라는 기술적 속성으로 인하여 감시기술 장치를 선택, 구매, 설치, 운영은 아빠가 관여하는 부분이였다. 특히 현서 엄마와 수미 엄마는 기술 장치를 어려워하고 낯설어해서 아빠가 전적으로 기술적 영역을 담당하며 감시 돌봄 실천에 참여하였다(현서네는 휴대폰 사용 제한 설정, 아파트 내부 CCTV 설정, 출차 관리 등 스마트홈 기술 전반을 아빠가 전담하고 있었다. 수미네도 마찬가지로 가정용기술장치는 전적으로 아빠가 선택, 설치, 운영하였다.) 반면에 준우 엄마는 기술적 부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술 부분까지도 모두 총괄하여 돌봄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들의 기술 장치와 관련된 참여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가구 모두에서 팬데믹 시기 증폭된 돌봄 노동은 주양육자인 엄마의 책임으로 떨어지면서 돌봄 노동 분배에 있어서 성별화된 불균형은 더욱 강화되고 있었고, 이러한 불균형은 종종 부부 간의 돌봄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구의 사례는 기술을 매개로 한 돌봄 실천의 확산 속에서도 여전히 1차적 관계에서의 '사랑 노동'이 굳건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린치는 사랑 노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Lynch, 2007, pp. 557-558). 첫째, 타인의 생존, 발달, 웰빙이 주요한 목적인 '감정 노동'으로, 긍정적인 돌봄 관계는 강한 소속감과 신뢰감을 동반하지만, 부정적이고 착취적인 돌봄 관계는 고립감, 불신, 고통을 동반한다. 둘째, 강력한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돌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에 대해 힘과 통제 수행한다. 셋째, 지속적인 관심과 반응을 요구한다. 돌봄지는 돌봄 과정 전체에 대한 지도를 그리며, 자신의 돌봄의 질과 범위를 끊임없이 조율한다. 넷째, 육체노동, 정신노동, 감정노동의 결합으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거

나(단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먹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걱정과 관심을 들어주고, 몸을 마사지 해주고,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에 우선순위를 두어 계획하고, 힘들 어할 때 지지하고 공감하는 것 등을 포괄한다. 사랑 노동은 헌신, 책임감, 신뢰, 주의 기울임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시간 투자를 요구하고, 여성들은 남성보다 이러한 사랑 노동을 수행하도록 윤리적인 명령을 받는다. 연구에 참여한 엄마들은 단지 집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공간에 걸쳐 광범위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직접 대면으로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더라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도 돌봄 노동은 지속되고, 현재의 시간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시간에 걸쳐 기획되고 수행된다.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계속 자신의 돌봄 실천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변경 하며 다양한 경로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돌봄 실천을 맥키이 등(Mckie et al., 2002)은 ‘돌봄 전경’(caringscapes)으로 표현한다.¹⁰⁾

주목할 점은 이러한 돌봄 과정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참여하고 있고, 실제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다. 팬데믹 시기 각 가정의 가정용감시기술을 매개로 한 감시 돌봄이 확산되는 과정은 돌봄자의 아이의 미래에 대한 투자 및 기획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지만, 관련 연구가 지적하듯(Ur, Jung, & Schechter, 2014; Makinen, 2016), 이것을 경험하는 방식은 부모와 자녀 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현서, 준우, 수미는 감시 돌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발언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피해서 자신들의 자율적인 영역을 넓히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수미는 감시 카메라가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감시 카메라의 관찰 속에서 활동하도록 강요”(Ticona, 2020; Ticona & Mateescu, 2018)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 점에서 팬데믹 시기 집은 감시 돌봄 실천을 둘러싸고 돌봄자와 아이들이 끊임없이 협상하는 공간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술 돌봄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 이러한 아이들의 목소리와 시각을 듣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10) 여기에는 “계획하기, 걱정하기, 예상하기, 추측하기, 우선순위를 매기기, 돌봄의 질을 평가하기, 돌봄에 접근하고, 돌봄을 통제하기, 돌봄 비용을 지불하기, 일하는 방식 바꾸기, 직업 불안정성, 승진 가능성, 이사, 가족 자원 관리, 지원 학교 일, 학교 또는 돌봄 그룹에 참여하는 것 등(Mckie et al., 2002, p. 91)”이 포함된다.

5. 나가며: 돌봄 관계의 불평등

가정용 자동화 기술을 장착한 ‘스마트홈’에 관한 수많은 담론과 상상은 계급 상승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다. 즉, 스마트홈은 첨단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안전한 성으로 더 많은 기술은 더 높은 계급을 상징한다. 하지만 세 가구의 이야기는, 적어도 돌봄에 한해서는, 이와 상반된 현실을 보여준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빈곤한 가구일수록 더욱 대면 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이러한 대면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더 많은 감시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감시 기술을 매개로 한 돌봄은 일시적으로 통제력과 안심의 감각을 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돌봄 관계의 질을 훼손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돌봄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많은 대중적 학문적 논의에서 돌봄은 이상화되지만, 실제 돌봄 실천은 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사랑과 폭력의 경계를 이슬이슬하게 줄타기한다. 돌보는 사람은 돌봄 받는 사람의 삶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다. 이는 아이가 어릴수록 더욱 심하다(예컨대, 신생아를 돌보는 사람은 신생아를 살릴 수도 죽일수도 있는 절대적 힘을 갖는다). 또한 돌봄 받는 사람이 단순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들의 행동은 돌보는 사람의 삶을 송구리째 흔든다. 이런 까닭에 의존성과 관계성이 핵심인 돌봄은 때로는 가장 폭력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적인 돌봄 관계는 사회적 돌봄 관계와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많은 연구들은 지난 수십년 간 사회적 돌봄 관계가 급격하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일터와 삶터의 감소는 그 속에서 형성되는 안정적인 관계의 축소를 의미한다. 또한 예측하기 힘든 일의 패턴과 가속화된 경쟁은 직장 동료나 친구와 의미있는 돌봄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공동체 일원으로 타인에 대한 연대의 감각을 제공하는 사회적 돌봄 관계 또한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집에서 수행되는 가족 중심의 돌봄 관계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는 “믿을 건 가족뿐이다”는 감각으로 표현되곤 한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된 듯하다. 특히 팬데믹 초기 대면 만남이 엄격하게 규제되면서 집은 전방위적인 돌봄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런 상황은 주양육자의 역할을 맡은 여성들의 일 패턴의 변화와 직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 가정용감시기술의 도입은 현재의 돌봄 관계의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지만, 이 논문에서 기술한 세 가구의 경험은 오히려 돌봄 관계의 빈곤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가구의 경험에서 가정용감시기술의 사용은 돌봄 빈곤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돌봄 관계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미래에 구축할 다양한 돌봄 관계(친구들과의 우정, 공동체 일원으로

서의 감각 등)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아이들은 가족과의 돌봄 관계를 넘어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다양한 차원의 돌봄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아이들은 양육자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학교 및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돌봄 관계를 형성하며 성인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립되고 자율적인 개인 혹은 가구를 전제로한 기술-사회에 대한 상상이 아닌,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살고 있는 세계를 전제로 한 기술-사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 글이 그러한 작업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 바란다.

References

- Andrejevic, M. (2020). *Automated media*. London, UK: Taylor & Francis.
- Berker, T., Hartmann, M., Punie, Y., & Ward, K. (2005). *Domestication of media and technology*. Maidenhead, UK: Open University Press.
- Boyd, D. (2014). *It's complicated: The social lives of networked tee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e, S. J. (2016). Ethics in intimate ethnography: Researching the underemployed women. *Media and Society, 24*(3), 47-88.
- Chae, S. J. (2021a). On breathing in the era of the pandemic.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9*, 40-66.
- Chae, S. J. (2021b). Home, surveillance, and everyday life: Digital-Based care and children's rights. In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Ed.), *Digital transformation from children's perspective. Korea's recovery strategy through the digital*.
- Chae, S. J., & Oh, Y. J. (2022).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 a caring society. Korea's innovation strategy through the digita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Choi, Y., & Hwang, S. (2022). During the pandemic, has Korean society taken good care of children? : Focusing on the elementary school care system and distance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13*, 207-248.
- de Certeau, M. (1988).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 La Bellacasa, M. P. (2011). Matters of care in technoscience: Assembling neglected things. *Social Studies of Science, 41*(1), 85-106.
- de La Bellacasa, M. P. (2017) *Matters of care: Speculative ethics in more than human worlds*. London, UK: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oty, P. (2020). Oxymorons of privacy and surveillance in "smart homes".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1).
- Doty, P. (2021). Privacy, surveillance, and the "smart home". In M. Ocepek & W. Aspray (Eds.), *Decoding where to live: Information studies on where to live in America* (pp. 93-124).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Fisher, B., & Tronto, J. (1990). Toward a feminist theory of caring. In E. K. Abel & M. K. Nelson (Eds.), *Circles of care: Work and identity in women's lives* (pp. 35-62). New York, NY: SUNY Press.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itchin, R., & Dodge, M. (2011). *Code/space: Software and everyday life*. Cambridge, MA: MIT Press.
- Lambert, C. (2015). *Shadow work: The unpaid, unseen jobs that fill your day*. Berkeley, CA: Conterpoint.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ynch, K. (2007). Love labour as a distinct and non-commodifiable form of care labour. *The Sociological Review*, 55(3), 550-570.
- Lyon, D. (2001). *Surveillance society*. London, UK: Open University Press.
- Lyon, D. (2018). *The culture of surveillance: Watching as a way of life*. Cambridge, UK: Polity Press.
- Maalsen, S., & Sadowski, J. (2019). The smart home on FIRE: Amplifying and accelerating domestic surveillance. *Surveillance & Society*, 17(1/2), 118-124.
- Makinen, L. A. (2016). Surveillance on/off: Examining home surveillance systems from the user's perspective. *Surveillance and Society*, 14(1), 59-77.
- Martin, A., Myers, N., & Viseu, A. (2015). The politics of care in technoscience. *Social Studies of Science*, 45, 625-641.
- McKie, L., Gregory, S., & Bowlby, S. (2002). Shadow times: The temporal and spatial frameworks and experiences of caring and working. *Sociology*, 36(4), 897-924.
- Mol, A., & Hardon, A. (2021). Caring: A fluid concept for adaptable engagements. In J. Bowen & N. Dodier (Eds.), *Pragmatic in inquiry: Critical concepts for social sciences* (pp. 185-205). Abingdon, UK: Routledge.
- Mol, A., Moser, I., & Pols, J. (2010). *Care in parctice: On tinkering in clinics, homes and farms*. Bielefeld, Germany: Transcripts Verlag.
- Morley, D. (2000). *Home territories: Media, mobility, and identity*. London, UK: Routledge.
- Murphy, J., & Parry, S. (2021). Gender, households and sustainability: Disentangling and reentangling with the help of 'work' and 'care'. *Environment and Planning E: Nature and Space*, 4, 1099-1120.
- Murphy, M. (2015). Unsettling care: Troubling transnational itineraries of care in feminist health practices. *Social Studies of Science*, 45, 717-737.

- Park, H. (2021, April 6). *Corona 19 home-withdrawal effect... LGU+ "U+ smart home subscribers 30% increase in 1 year*. Herald Economy. Retrieved from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406000085>
- Park, S. J., & Abelmann, N. (2004). Class and cosmopolitan striving: Mothers' manage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77(4), 645-672.
- Rapoport, M. (2012). The home under surveillance: A tripartite assemblage. *Surveillance & Society*, 10(3/4), 320-333.
- Silverston, R. (1994). *Television and everyday life*. London, UK: Routledge.
- Suchman, L. (2007). *Human-machine reconfigurations: Plans and situated actions* (2nd ed.).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cona, J. (2020, Fall). *Essential and untrusted*. Dissent. Retrieved from <https://www.dissentmagazine.org/article/essential-and-untrusted>
- Ticona, J., & Mateescu, A. (2018). Trusted strangers: Carework platforms' cultural entrepreneurship in the on-demand economy. *New Media & Society*, 20(11), 4384-4404.
- Tronto, J.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Ur, B., Jung, J., & Schechter, S. (2014). Intruders versus intrusiveness: Teens' and parents' perspectives on home-entryway surveillance. *Proceedings of the 2014 ACM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Pervasive and Ubiquitous Computing (UbiComp '14)*, 129-139. doi: 10.1145/2632048.2632107
- Wise, M. J. (2004). An immense and unexpected field of action: Webcams, surveillance and everyday life. *Cultural Studies*, 18, 424-442.
- Zheng, S., Apthorpe, N., Chetty, M., & Feamster, N. (2018). User perceptions of smart home IoT privacy. *Proceedings of the ACM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2(CSCW), 1-20. doi: 10.1145/3274469
- Zuboff, S. (2015). Big other: Surveillance capitalism and the prospects of an information civilizatio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30(1), 75-89.
- Zuboff, S. (2019).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 New York, NY: Public Affairs.

최초 투고일 2022년 10월 14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28일
논문 수정일 2022년 12월 02일

부록

- 박혜림 (2021, 4, 6). 코로나19 집콕족 효과...LGU+ “U+스마트홈 가입자 1년새 30%↑. 〈헤럴드경제〉. Retrieved from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406000085>
- 채석진 (2016). 친밀한 민속지학의 윤리: 청년세대 여성들의 취약한 삶, 노동, 디지털 미디어 사용 연구하기. 〈인론과 사회〉, 24권 3호.
- 채석진 (2021a). 팬데믹 시기의 숨쉬기에 대하여. 〈한국언론정보학보〉, 109권, 40-66.
- 채석진 (2021b). 집, 감시, 일상: 디지털 기술 기반 돌봄과 아동 인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편), 〈아동의 관점으로 보는 디지털 전환_대한민국 디지털로 회복전략 8〉.
- 채석진·오연주 (2022). 〈돌보는 세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_대한민국 디지털로 혁신전략 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최이숙·황선영 (2022) 팬데믹 시기, 한국사회는 아이들을 잘 돌봐왔는가?: 초등 돌봄 제도와 원격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13권, 207-248.

집, 일상, 감시: 팬데믹 시기 집의 재구성과 '감시 돌봄' 실천 연구

채석진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이 글은 2년간의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팬데믹 시기 개별 가구들이 어떻게 상이하게 돌봄 위기에 대응하며 집과 일상을 재구성하며 돌봄 실천을 하였는지 탐사한다. 이 연구는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경험하는 감시는 거리, 상징, 학교, 사무실과 같은 공적 공간에서 경험하는 감시와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거주민들이 자기 집에 직접 설치한 가정용 감시 기술이 어떠한 속성과 양식의 돌봄 관계를 조립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가정용 감시 기술과 돌봄 관계에 관한 논의로, 가정용 감시 기술을 매개로 정부와 기업의 집에 대한 침범이 돌봄 실천과 어떻게 긴밀하게 맞물려 작동해왔는지 논의한다. 또한 돌봄 관계를 고립되고 자율적인 주체들의 개별적 행위가 아닌,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되어 수행하는 집합적 행위로 논의한다. 다음은 현장 연구에서 만난 세 가구의 이야기로, 팬데믹 시기 개별 가구가 돌봄 위기에 대응하며 어떻게 가정용 감시기술을 채택하여 돌봄을 수행하였고, 이 속에서 어떠한 속성의 돌봄 관계가 조립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돌봄 실천에 관한 두 가지의 지배적인 경향에 도전한다. 하나는 돌봄을 주로 집에서 수행되는 고립된 실천으로 가정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집이라는 공간이 공적 영역의 변화와 맞물려 끊임없이 재조립되는 공간이며, 돌봄 실천이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공적/사적 영역을 가로질러 항시적으로 연결되어 구성하는 행위임에 주목한다. 다른 하나는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공적/사적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가로질러 수행되는 돌봄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행위자임에 주목하여, 돌봄 실천을 (기존 연구가 초점을 두었던) 인간 행위만이 아닌 비인간적 요소들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인적-기술적-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탐사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이 연구는 '돌봄 전경'(caringscapes)(Mckie et al. 2002)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결론으로 이 글은 팬데믹 시기 집에서 가정용 감시 기술을 매개로 구성하는 '감시 돌봄' 실천이 광범위하게 조립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돌봄 관계를 침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어 : 감시 돌봄, 집의 재구성, 가정용 감시기술, 일상, 돌봄 전경